

3장:
진보주의 정권에 대한 반발
(1941 - 1952)

1. 전쟁과 정부개입 정책의 강화

1) 전쟁의 경기 부양 효과

- 대전 중 1929년부터의 대공황 문제(특히 실업) 완전 해결
 - : 연방 정부의 막대한 지출
(1939년 \$90억 --> 45년 \$1,000억)
 - : 개인소득 증가 (1938년 \$2,760 --> 1942년 \$4,404)
 - : 1,7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
 - : 미국은 당시 세계의 빵바구니
 - : 거의 모든 물자에 대한 세계의 공급기지
- 유럽 밖의 백인 국가(캐, 호, 뉴, 브, 아르)등도 부국의 기틀 이룸
- 막대한 전비는 인플레이 유발
 - 세금 인상으로 다수 환수
 - : 정부개입 정책 강화

2) 전쟁과 국가통제의 강화

- 전쟁으로 1,500만명 군입대(p)

근로 인력 절대 부족

→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으로 대체 (p)

: 완전 고용 3

: 전쟁 기간 중 노조활동 제한을 강제

: 근로자들 파업 금지 서약

: 임금 인상 상한선 15%로 억제

- 샌프란시스코 조선소 파업을 장갑차로 진압

- 당시 파업은 비애국적 행위로 간주됨

- 유럽에 대한 물자 지원으로 미국내 물자 부족

→ 배급제 시행함

- 모든 유희지 경작하였는데, 조그만 텃밭도 작물 재배

- 세입법(1942) 제정으로 소득세 최고 94% 인상

: 저소득층에게도 소득세 부과

- 전쟁 예상외로 조기 종결

- : 1945년 8월 원자탄 사용(p)으로 1년 6개월 빨리 종결
- : 전후 문제에 대한 준비 부족
- : 동원해제로 1,200만 군인이 대부분 민간인으로 복귀
- : 포드 등 기업들 대량 해고 → 실업자

: 트루먼 대통령 「경제권리장전」 주장

→ 1946년 고용법 제정으로 고용, 생산, 구매력 증대

→ 정부 적자지출

→ 결국 사회주의적 이념 포함

→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 복귀 힘들게 됨

2. 좌경화에 대한 제동

1) 노동조합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

-전후 농민, 근로자, 소비자 등 물가 통제와 암거래로
불만 폭발

: 전쟁 당시 초과 근무가 전후에는 40시간 근무로
줄어들어 임금의 자연적 삭감

: 1946년 4월 광산노조 파업

→ 철강, 자동차, 열차마비, 등화관계 실시

→ 노조에 대한 국민 불만

: 노조원 징집, 연공 혜택 폐지 등 검토

→ 트루먼에 대한 노조지지 하락

→ 중간선거(1946)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패배

2) 공화당 지배 의회와 「태프트-하틀리법안」

(Taft-Hartley Act; 1947)

-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「태프트-하틀리법안」 통과

- : 고용주 규제 완화
 - :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“폐쇄적 작업장” 제도를 폐지
 - : 국가 안보 위협할 경우에는 대통령 파업금지 명령
 - : 파업 직전 80일 동안 냉각기
 - : 노조는 연방 차원의 선거자금 제공 금지
 - : 노조 간부는 공산주의자 아님을 서약
 - :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권 + 단체교섭권 + 파업권은 그대로 유지
- 민주당은 사적처벌(사형) 금지, 인두세(선거세금) 폐지, 공정고용법 제정, 실업수당 확대, 최저임금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함

- 트루먼 인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1948년 선거 승리
: 당시 공화당 후보는 CA의 토마스 듀이
- 1940년대부터 미국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전 세계로 확산
- : 그런데 1944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루스벨트와 공화당의 듀이 후보 중 리터럴리 다이제스트(Literary Digest) 라는 잡지는 100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듀이의 승리 예상
- : 그러나 당시 미국은 전화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은 중상류 이상의 부유층
- : 이들 100만 명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중상류 계층만 대표하게 됨으로써 당시 조사가 전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맹점

- : 이들 중상류 계층은 당연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는데, 여론조사의 결과도 공화당의 듀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
- : 또한 당시 컴퓨터 성능이 매우 부실하였는데, 100만 명을 조사/분석에 많은 오차 발생
- : 결국 엄청난 경비를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리터럴이 다이제스트 부도

- : 이 때 루스벨트가 승리할 것을 예상한 사람이 바로 조지 갤럽 (George Gallup) 인데, 갤럽은 이후 갤럽여론조사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여론조사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

- 루스벨트의 뉴딜 연합전선

- : 대도시 시민, 흑인, 노조, 유태인, 카톨릭교도, 농민 등은 여전히 민주당지지

3) 페어딜 (Fair Deal) 과 민권문제에 대한 관심

- 새로운 임기의 트루먼은 모든 국민에게
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정한 대우 (fair deal) 약속
- : 주로 흑인 민권 향상

- 전쟁과 흑인 지위의 향상

- : 북부 군수공장 많음
- 남부 흑인들 북부로 이주하여 취업
- : 북부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인종 차별 심화
- : 남부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 생김

- 흑인들의 전쟁 참여로 흑인 (여성) 지위 향상(p)

- :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군인숫자 절대 부족으로 70만 명의 흑인이 군 입대
- : 훈련소에서 부분적으로 흑백 통합 효과 생김
- : 흑인들도 미국정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도움

→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후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인 「**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**」 (NAACP)가 설립됨

-민권운동가들의 인종격리 원칙 (Separate-but-equal doctrine) 폐지운동

- :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흑인 중 극소수만 주립대 등에 겨우 입학 가능
- : 그러나 여전히 고용과 투표권은 사실상 박탈당함